

白鹿潭

1

絶頂에 가까울수록 백국채 꽃기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 옷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박한다. 바람이 차기가 威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2

巖古蘭, 丸藥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다.

3

白樺 옆에서 白樺가 髑髏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白樺처럼 흰것이 승없지 않다.

4

鬼神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모퉁이, 도체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海拔六千呎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결에 山길 百里를 돌아 西歸浦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움매— 움

白鹿潭

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登山客을 보고도 마고 매여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것을 나는 울었다.

7

風蘭이 풍기는 香氣,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濟州회파람새 회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굴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때 쇠— 쇠— 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년출 기여간 흰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조친 아롱점말이 避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石葺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高山植物을 색이며 醉하며 자며 한다. 白鹿潭 조찰한 물을 그리여 山脈우에서 깃는 行列이 구름보다 壯嚴하다. 소나기 늦늦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익여 불인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기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좃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잘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니라.

→ 동백 나무

동백꽃을 제철에 와서 못본 한이 실로 크외다. 그러나 위낙 이름이 높은 나무고 보니 꽃철은 아닐지라도 허울만으로도 뛰어나게 좋지 않습니까? 울안에 선 오륙株가 연령과 허우대로 보아도 훨씬 고목이 되었것만 잎새와 순이 어찌 이리 소담하게 좋으며 푸른 것이오리까! 같이 푸르러도 소나무의 푸른 빛은 어쩐지 老年의 푸른 빛이겠는데 동백나무는 고목일지라도 항시 청춘의 녹색입니다. 무수한 열매가 동글동글 열리어 빛갈마자 아릿답게도 붉은 빛입니다. 열매에서 香油가 나와 칠칠한 머릿단을 다시 윤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의와 풍습으론 조금도 다른 점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울창히 어울어진 동백수풀 그늘 안에 들어서고 보니 南道에도 南道에를 왔구나 하는 느낌이 굳세어 집니다. 기차로 한밤 한낮을 허비하여 이 강진골을 찾아온 뜻은 친구의 집 울안에 선 다섯거루 동백나무를 보러 온 것인가 봅니다.

하물며 첫 정월에도 흰눈이 가지에 내려 앉는 날 아조 푸른 잎에 새빨간 꽃송이는 나그네의 가슴속에 어떻게 박힐 것이오리까! 더욱이 그것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있다싶이 한데야 어찌합니까! 무덤 앞에 石物은 못 장만할지라도 동백나무와 盤松을 심어서 세상에도 쓸쓸한 처소를 겨울에도 봄과 같이 꾸민다 하오니 실로 南方에서 얻을 수 있는 황홀한 詩趣가 아니오리까.

離家樂

잠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 흡사히 오래간만에 집을 찾아 드는 것과 같이 기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집을 떠나는 기쁨! 그래도 집이 있고 이웃이 있고 아버이를 모시고 처자를 거나리는 사람이라야 오직 가질 수 있는 기쁨으로 돌릴 수 바께 없다.

家累라는 말을 쓰기로 하자. 가루에 얽매여 보지 못한 매이지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형편으로는 미상불 부러웁기 그지없다.

허나, 내가 부러워하는 훗훗히 신세 편한 사람들이여, 집안일 나 모릅세 하고 훌쩍어 안해에게 처말기고 물따라 구름따라 훌훌히 떠나가는 기쁨은 그대가 애초에 알 수가 없으리라.

라빈드나—드 타고—르 詩에 이러한 뜻으로 된 것이 있었던 줄로 기억되는 것이 있으니, 어린아기가 본래 초사흘달나라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였지만 어머니 무릎에 안기어 우는 부자유가 더 그림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보다는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즐겁다는 뜻으로 된 詩다.

글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타고—르의 詩風으로 장식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가물음에 툭툭하고 무덤은 골목길에 나서서 밤 하늘에 달을 아무리 치어다보아야 이러한 인도풍의 신비가 염두에도 오르지 아니한다.

나는 마침내 생활과 가정에 黑奴와 같이 매인 것이요, 자다가는 성급한 폭군도 되는 것이요 무슨 피임에 떨어져 나가듯이 며칠 동안은 고려

愁 誰 語 I-3

항구에 자옥이 내려안즌 아츨안개나 遊牧場 우에 먼양떼와 노니는 흰 구름이나 그러한 빗티 곱다. 그보다도 요염하기는 閑雅하게 고리를 지어 오르는 마도로스 파이프에 타는 지사미 연기사빰티 아니라—

일전에 체신국에 다니는 친구 하나이 맨드세 참한 파이프를 가졌기에 알고 보니 토이기제품일러라. 입술 닳는데만 검은 빨로 되고 나무결과 빗같이 진득히 고흔 품이 감람기름에 짙어나온 듯하더라.

회회 둘러 속을 빼보니 새처럼 창자가 장치되어 있다. 니코틴을 걸르기 위한 기공일러라. 십자군과 항쟁하야 성지나 점령하고 회람사람과 원수나 짓는 모하멧교 토이기도 이런 아기자기한 工藝가 있고나 했다. 허나 그것은 귀에 끼울 정도의 물뿌리에 지나지 안혔다. 사나이는 역시 곱으장하고 뚱뚱하고 완만스럽고 익살마진 골통대가 열리는 것이라 고 불고불한 창자가 장치된 토이기제 마도로스 파이프 불시로 갖고 싶드라. 알콜이 엷는 술 혹은 「흡」의 원료가 조금도 엷는 순수한 비—루란 생각할 수 엷는 일이나 니코틴이 아조 걸려져 나와 빗갈과 향취가 더욱 더욱 세련되어 니코틴이 아조 엷는 순수한 담배연기 흰 나리꽃 가튼 정조를 담은 청춘을 아모리 끄시울래야 끄시울 수 엷슬 것이요 사—르 보—드 레르적 생리를 완전히 극복한 신경엔 달밤에 젖은 안개가티 안우하리라. 붉은 입술에 걸어들 만하고 옷가슴에 한떨기 꽃을만하고 벽화로 옮겨가 구름이 될 만하고 푸로메스탄트 목사님들이 성서문제에까지 확충식힐 리도 엷스리라.

토이기제 마도로스 파이프를 어기푹 물고 鋪道로 나가리라. 다만 담배를 피운다는 구실만으로 유쾌할 것이요 일체무관한 스캔달에 자신을 어들 것이요 보신각 바로 여폐서 백주에 月南 李선생을 만나 꽃떡 한번 하고 폭 폭 피우며 지나갔다.

파라솔을 가지지 안흐라거든 파이프를 물어라 혹은 蓮대 잘른 듯한 파이프.

무실한 흡연에 화려한 방종! 청춘과 교양을 맞춘 구역에서 가질만 하려니.

그대들의 그림자가 3년안에 어니 골목으로 사라질지 모를 바에야!

핑퐁 알을 얼마나 만히 넘기기보다 파이프 연기 고리를 얼마나 만히 공중에 걸어둔다는 것은 조은 시합이기도 할 것이다. 학과가 마치인 후 담장이 기여 올라간 벽돌을 의지하야 모다 꾀삭꾀삭 피운다든지 輕騎兵이 지나가는 오우토타이가 달리는 플라타—느 푸른 입새가 무성한 아스팔트 위로 제복을 벗은 오후 고은 크림빛 원피스 산산한 맛에 가장 무심하게 가장 謹慎스럽게 흰 연기 꼬리를 남기며 지날 만도 하려니 대개 숨을 슬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화려한 말괄량이 짓에 있고 사감의 슬픈 임무도 또한 언젠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것이란 흔히 슬픈 것이어니 5월 모란이 화안히 피고 개인 날 창마다 월적 열어노코 안저도 혹은 사본사본 걸어도 어쩐지 슬픔이 따르지 안턴가. 연기는 마침내 공허하기 연기에 지나지 안흔지라. 玉榻기 가티 겁만흔 눈에 설지 안흔 눈물을 자극하는 외에 무슨 의미가 잇스랴. 설지안흔 시조가 눈비비는 동안에 아이아이 내쳐 울게도 되는 것이라 한창 피기 전후에는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울고시푸지 안헐턴가. 그러기에 돌연히 탈선한 亂박자로 피아노를 發作시키기도 하고 G선을 부욱부욱 할퀴다시피 하야 原作者를 도로혀 놀라게 하는 때도 있다.

愁誰語 Ⅲ-1(耳目口鼻)

사나운 김승일수록 코로 맡는 힘이 날카로워 우리가 아모런 냄새도 찾아내지 못할 적에도 쉼퍼—드란 놈은 별안간 씹씩거리며 제 꼬리를 제가 물고 뽕뽕이를 치다시피 하며 땅을 호비어 파며 젖으며 달리며 하는 꼴을 보면 워낙 길들인 김승일지라도 지겹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상스럽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도적을 맡아내는 것이다. 서령 도적이 기로서니 도적놈 냄새가 따로 있을 게야 있느냐 말이다. 만 골목에서 제 홀로 꼬리를 치는 암놈의 냄새를 만나도 보기 전에 맡아내며 설레고 경정거리다면 그것은 혹시 몰라 그럴사한 일이니 견주어 말하기에 禮답지 못하나마 사람끼리에도 그만한 嗅覺은 설명할 수 있지 아니한가. 도적이거나 범죄자의 냄새란 대체 어떠한 것일까. 사람이 죄로 인하여 육신이 영향을 입는다는 것은 체온이나 혈압이나 혹은 신경작용이나 심리현상으로 세밀한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직접 농후한 악취를 발한대서야 견딜 수 있는 일이나 말이다. 예전 성인의 말씀에 죄악을 범한 자의 영혼은 문둥병자의 육체와 같이 부패하여 있다 하였으니 만일 영혼을 직접 냄새로 맡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견뎌내지 못할 별별 악취가 다 있을 것이니 이쯤 이야기하여 오는 동안에도 어쩐지 몸이 굳시럽고 징그러워진다. 다행히 취각이란 그렇게 예민한 것으로 되지 않았기에 서로 연애나 약혼도 할 수 있고 禮를 갖추어 현구고도 할 수도 있고 자진하여 손노동 하러 가서 응수한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랏쉬 아워 전차 속에서도 그저 견딜 만하고 중대한 議事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

던가. 더욱이 다행한 일은 약간의 경찰법 이외에는 쉼퍼—드란 놈에게 쫓길 리 없이 대개는 물리어 죽지 않고 지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취각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姑息之計를 이어 나가거니와 순수한 靈魂으로만 존재한 천사로 말하면 현 누덕이 같은 육체를 갖지 않고 超自然的 靈覺과 지혜를 갖추었기에 사람의 靈魂狀態를 꿰뚫어 간섭하기를 해스빛이 유리를 지나듯 할 것이다. 위대한 호수가로 달리는 어턴아이 뒤에 바로 천사가 따러 보호하는 바에야 죄악의 절벽으로 달리는 우리 영혼 뒤에 어찌 천사가 애타하고 슬퍼하지 않겠는가. 물고기는 부패하라는 즉시부터 벌써 냄새가 다르다. 영혼이 죄악을 계획하는 순간에 천사는 코를 막고 쩡그릴 것이 분명하다. 세상에 쉼퍼—드를 경계할 만한 인사는 모름즉이 천사를 두려워하고 사랑할 것이니 그대가 이 세상에 떨어지자 하늘에 별이 하나 새로 솟았다는 神話를 그대는 무슨 이유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그대를 항상 보호하고 일깨우기 위하여 천사가 따른다는 信仰을 그대는 무슨 이론으로 거부할 것인가. 천사의 취각이 해스빛처럼 섬세하고 또 신속하기에 우리의 것은 휘석 무더고 거칠기에 우리는 도로혀 천사가 아니었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 이 세상에 거룩한 향내와 깨끗한 냄새를 가리어 맡을 수 있는 것이니 五月스달에도 木蓮花 아래 설 때 우리의 五官을 얼마나 황홀히 조절할 수 있으며 薔薇의 眞髓를 뽑아 몸에 진힐 만하지 아니한가. 쉼퍼—드란 놈은 木蓮의 향기를 감촉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니 묵련화 아래서 그놈의 아모런 표정도 없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것이다. 대개 경찰법이나 암놈이나 고기스덩이에 날카로울 뿐인 것이 분명하니 또 그리고 그러한 동속의 냄새를 찾아 낼 때 그놈의 소란한 동작과 황당한 얼굴짓을 보기에 우리는 저옥이 괴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사람도 혹시는 부지중 그러한 세련되지 못한 표정을 숨기지 못할 적이 없으란 법도 없으니 불시로 침입하는 냄새가 그렇게 요염한 때이다. 그러기에 인류의 얼굴을 다소 壯重히 보존하여 불시로 초조히 흠으려짐을 항상 경계할 것이요 耳目口鼻를 골르고 삼갈 것이로다.

責하라. 원래 具本雄君과 계획하여은 「靑色紙」 첫호에 실리어 큰 소리 하자 한 것이 뜻한 바와는 어그러지고 말다. 진득한 곳으로 남의 눈에 뜨히지 안코 살아진 송이가 줌도 만홀가 보나. 분실되고 마른 나의 시 「玉流洞」아 한곳 아름다웠스려므나.

愁誰語 제 2회분을 미리 쓰지 못하고 囚人과 가티 초조함에 견딜 바 업스매 오후 2시에 돌아가는 超速度 輪轉機는 그러면 너의 목이라도 갖다 바치고 대령하라는 셈이다. 겨우 기억되는 대로 金剛題二篇을 바치노니 사형기사에나 명문에나 한갈로 냉혹한 운전기아께서 실상 꾀까지 아끼어야 할것 업서 하노라.

「靑色紙」 첫호에 뼈를 갈아서라도 채워 노어야 할 것을 느끼며 이만.

愁誰語 Ⅲ-3(肉體)

몽-끼라면 아시겠습니까. 몽-끼, 이름조차 맛대가지없는 이 연장은 집터 다지는 데 쓰는 몇 千斤이나 될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저울추 모양으로 된 그 쇠덩이를 몽-끼라고 이름매다. 표준어에서 무엇이라고 제정하였는지 마침 몰라도 일터에서 일꾼들이 몽-끼라고 하니깐 그런 줄로 알 밖에 없습니다.

몽치란 말이 잘못 되어 몽-끼가 되었는지 혹은 월래 몽-끼가 옳은데 몽치로 그릇된 것인지 語源에 밝지 못한 소치로 재삼 그것을 가리라고는 아니하나 쇠몽치 중에 하도 육중한 놈이 되어서 생김새 등치를 보아 몽치보담은 몽-끼로 대접하는 것이 좋다고 나도 보았습니다.

크낙한 양옥을 세울 터전에 이 몽-끼를 쓰는데 굵고 크기가 전신주만큼이나 되는 장나무를 여러개 횡석 우스등을 실한 쇠줄로 묶고 아래 스등은 벌리어 세워놓고 다시 가운데 철봉을 세워 그 철봉이 몽-끼를 꿰뚫게 되어 몽-끼가 그 철봉에 꽂히인 대로 오르고 나리게 되었으니 몽-끼가 내려질리는 밀바닥이 바로 굵은 나무기둥의 대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기둥이 바로 땅속으로 모주리 들어가게 된 것이니 기력지가 보통 와가집 기둥만큼 되고 그 위로 몽-끼가 벽력같이 떨어질 거리가 다시 그 기둥 키만한 사이가 되어 있으니 결국 몽-끼는 땅바닥에서 이층집 꼭두만치는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몽-끼가 기여오르는 꼴이 불 만하니 좌우로 한편에 일곱사람씩 늘어서고 보면 도합 열네사람에 각기 잡아다릴 굵은 참바줄이 열네가닥, 이 열네가닥이

잡어다리는 힘으로 그 육중한 몽—끼가 기어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번에 올라가는 수가 없어서 한 절반에서 삼시 다른 장목으로 고이었다
 가 일꾼 열네사람들이 힘찬 호흡을 잠깐 돌리었다가 다시 와락 잡어다
 리면 꼭두끝까지 기어올라갔다가 내려질 때는 한숨에 내려박치게 되니
 쿵응 소리와 함피 기둥이 땅속으로 문쩍문쩍 들어가게 되어 근처 행길
 까지 들석들석 울리며 꺼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릇을 기둥이 모
 두 땅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줄곳 해야만 하므로 장정 열네사람이 힘이 여
 간 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한사람은 초성 좋고 장고 잘 치고
 신명과 넉살좋은 사람으로 옆에서 지경뒀는 소리를 백이게 됩니다. 하
 나가 백이면 열네사람이 받고 하는 맛으로 일터가 흥성스러워지며 일이
 설하게 부쩍 부쩍 늘어갑니다. 그렇기에 백이는 사람은 점점 흥이 나고
 신이 솟아서 노래사사연이 별별 신기한 것이 연달어 나오게 됩니다. 애
 초에 누가 이런 민요를 지어냈는지 구절이 용하기는 용하나 좀 듣기에
 면고한 데가 있습니다. 대개 큰애기, 총각, 과부에 관계된 것, 혹은 신
 작로, 하이칼라, 상투, 머리꼬리, 가락지 등에 관련된 것을 노래로 부르
 게 됩니다. 그리고 에헬렐레상사도로 리쁘레인이 계속됩니다. 구경꾼도
 여자는 잠깐이라도 머뭇거릴 수가 없게 되니 아무리 노동꾼이기로 또 노
 래를 불러야 일이 설하고 불고 하기로 듣기에 얼굴이 부끄러 와락 와락
 하도록 그런 소리를 할 것이야 무엇 있습니까. 그 소리로 무슨 그렇게 신
 이 나서 할 것이 있는지 야비한 얼굴짓에 허리아래등과 어깨를 으씩
 으씩 하여가며 하는 꼴이 그다지 애교로 사주기에는 너무도 나의 신경
 이 가늘고 약한가 봅니다. 그러나 육체노동자로서의 독특한 비판과 풍
 자가 있기는 하니 그것을 그대로 듣기에 좀 찢리기도 하고 무엇인지 생
 각케도 합니다. 이것도 육체로 산다기보다 다분히 신경으로 사는 까닭
 인가 봅니다. 그런데 몽—끼가 이 자리에서 기둥을 다 밝고 저 자리로 옮
 기라면 불가불 일꾼의 어깨를 빌리게 됩니다. 실한 장정들이 어깨에 목
 도로 옮기는데 사람의 쇠골이란 이렇게 뺏잘긴 것입니다. 다리가 휘창
 거리어 쓸어질가 싶게 갠신갠신히 옮기게 되는데 쇠골이 부러지지 않고
 백이는 것이 회한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런 입에 울리지 못할 소
 리는커녕 영치기영치기 소리가 지기영 지기영 지기영 지기지기영으로 변
 하고 불과 몇걸음 못 옮기어서 흑흑하며 땀이 물솟듯 합데다. 짓궂은 몽
 —끼는 그 팔에 매달려 가는 맛이 호습은지 등치가 그만해가지고 어찌면
 하로 풀파리로 살아가는 샅군 어깨에 늘어져 근드렁근드렁거리는 것입

니까. 솟제 침통한 우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네는 이마에 땀
 을 내어 밥을 먹는다기보담은 시뻘건 살덩이를 몇점씩 푹푹 잡아떼어 내
 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밥으로 때우어야만 사는가 싶도록 격렬한 노동에
 견디는 것이니 서령 외설하고 溼風에 가까운 노래를 부를지라도 그것을
 입시울에 그치고 말 것이요 몸동아리까지에 옮겨갈 여유도 없을가 합니
 다.